

# 발해의 천도 동모산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 다

794년(성왕 1)



상경성

/ 동북아역사넷(동북아역사재단) /

## 1 개요

698년 대조영(大祚榮)이 동모산(東牟山)에서 발해(당시에는 진국)를 건국하고, 2대 무왕(武王) 때 현주(顯州)로, 3대 문왕(文王) 때 상경(上京)으로 천도하였다. 문왕 말에 동경(東京)으로 천도하였으나 5대 성왕(成王)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왔다. 그 뒤 상경은 멸망 때까지 수도로 유지되었다.

## 2 첫 번째 도읍지 동모산

698년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우고 진국(振國)이라 하였다. [관련사료](#)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949년 중국 길림성(吉林省) 둔화시(敦化市) 육정산(六頂山) 고분군에서 정혜공주 무덤과 묘비가 발견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. 묘비에서는 정혜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로 진릉(珍陵)에 배장(陪葬)되었다고 하였는데, 진릉이 발해 초기의 왕릉이라고 한다면 대조영의 도읍지 역시 그 일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.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곳에 위치한 성산자산성(城山子山城)이 동모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현재는 거의 통설로 굳어져 버렸다. 결국 발해 최초의 도읍지는 현재의 둔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여기에는 산성인 성산자산성과 또 평지 유적인 영승(永勝) 유적, 그리고 발해 초기의 왕실 무덤군인 육정산 고분군 등이 자리 잡고 있다.

이곳은 나중에 옛 도읍지라는 의미에서 '구국(舊國)'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. [관련사료](#) 원래 '국(國)'이라는 글자는 국가란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, 성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발해의 행정 구역인 5경 15부 62주 [관련사료](#) 중 15부에 속하지 않는 3개의 독주주(獨奏州) 가운데 하나인 동주(銅州)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여기에서 독주주라고 하는 것은 부(府)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에 직접 업무를 전달하는 주(州)를 말한다.

## 3 두 번째 도읍지 현주